

부 고

메리 마라 MARY MARA 수녀

ND 5020

조이스 필리스 베넷 Joyce Phillis BENNETT



미국,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

출 생: 1938 년 9 월 2 일 오하이오 톨레도
서 원: 1959 년 8 월 11 일 오하이오 톨레도
사 망: 2021 년 4 월 12 일 오하이오 톨레도

나의 전 생애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영원히 반영하리라.

사망 이틀 전, 메리 마라 수녀는 “예수님하고 저하고만 조용히 있고 싶어요.”라고 하면서 혼자 있게 해 달라고 청했다. 수녀는 평생토록 하느님과의 보다 깊은 친밀함을 갈망했다. 그래서 삶의 여정과 목적지 - 하느님께 일상적이면서도 최종적인 말감을 지향하는 - 가 하나였다.

해롤드와 소피(야쿠보브스키) 베넷의 무남독녀였던 조이스는 자신의 폴란드 유산을 특히나 자랑스러워 했다. 폴란드 빵을 굽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여러 폴란드 표현을 알고 있었으며 성 히야친타 폴란드 본당 학교에 다녔다. 1956 년,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하면서 그 해 9 월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고 이듬해에 착복했다.

교육학 학위를 취득한 수녀는 교실 수업에 잘 준비된 상태였다. 교사로서의 46 년 중에서 32 년은 6 학년 학생들과 함께 보냈다. 25 년은 인디애나 가르멜의 성 가르멜 산 본당에서 신자들과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를 사랑하며 사도직에 종사했다. 수녀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존경받던 뛰어난 교사였다. 특히 작문과 연구 기술 교수에 재능이 있었다. 학생들은 훗날 삶에서 이러한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 준 수녀에게 감사하곤 했다.

2005 년, 교실 수업에서 물러난 수녀는 그 유쾌한 목소리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노틀담 수녀회 후원회의 일을 돕는데 사용했다. 은인들에게 매일 전화해서 그들의 기부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우정을 쇄신하며 그들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.

수녀는 수 년간 암을 앓았으며, 당뇨가 심했다. 식단을 아주 잘 지키면서, 무엇을 먹었는지, 언제 먹었는지, 혈당 수치가 어떤지, 매번 주사한 인슐린 양은 얼마인지 등 모든 것을 기록했다. 조직은 수녀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였다.

메리 마라 수녀는 복되신 성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심을 발전시켰다. 묵주와 마니피캇은 수녀가 충실히 읊곤 하던 강력한 기도였다. “저의 전 인간됨은 감사의 기쁨으로 커져가며 구세주 하느님 앞에 열린 채 놓여있나이다...이제 우리 조상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끝없이 실현되고 있나이다.”

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.